

학령전기 빈곤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 요인

방 경 숙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령전기는 성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 아동의 행동문제는 청소년기의 행동문제로 이어지며 공격성이나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 (Dodge, Greenberg, & Malone, 2008), 아동 초기의 바람직한 성격 형성과 행동문제 개선을 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 시기는 안정적인 부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가정 밖으로 영역을 넓혀 다른 아동들과도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시기이며 어린 아동이라도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는 경우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다(Keane & Calkins, 2004).

이러한 아동의 성격 형성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양육 특성이다. 특히 빈곤아동의 경우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높고 가족구조도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난 경우가 많아(방경숙, 2007) 행동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최근의 3세대에 걸친 중단연구에서는 빈곤 계층의 부정적인 양육형태는 대를 이어 나타나며, 이러한 양육형태는 유아의 문제행동, 특히 공격성과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Scaramella, Neppl, Ontai, & Conger, 2008).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 중 특히 부모의 훈육방법은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Laskey와 Cartwright-Hatton(2009)은 부모의 훈육

방식이 아동의 행동 문제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결론지었으며 특히 내재화 문제는 거친 훈육과 관련되어 있고 불안하고 위축된 아동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체벌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은 공격성을 학습하여 공격적이 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때리거나 벌을 주는 등의 체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부모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다른 편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녀의 행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내버려두는 방임의 형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모의 반응은 오히려 더 많은 행동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보고도 있다(오희옥, 오선옥, 김영희, 2007).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반 학령전기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학령전기 빈곤 아동의 행동문제는 어떠한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고소득 계층보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아동의 정신병리 상태는 훨씬 많은 위험에 처해있다는 외국 연구결과(Assis, Avanci, & deOliveira, 2009)를 볼 때 특히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2004년부터 국내 취약계층 임산부 및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건강, 복지, 교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위스타트사업(이봉주, 양수, 김명순, 2004) 및 이 모형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시행되고 있는 드림스타트(보건복지가족부, 2009) 대상 지역 학령전기 아동의 행동문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어 : 학령전기 아동, 아동행동, 빈곤, 양육

1)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ksbang@ajou.ac.kr)

투고일: 2009년 9월 30일 심사완료일: 2009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12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계층 학령전기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과 양육자의 특성, 특히 훈육방법의 영향을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부모교육과 아동의 행동문제 개선을 위한 간호중재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계층 학령전기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빈곤아동의 특성(성별, 연령)에 따른 아동행동문제의 차이를 비교한다.
- 양육특성(훈육방법, 양육에 대한 자신감,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애착, 인지적 자극)에 따른 아동행동문제의 차이를 비교한다.
- 양육자의 양육자신감에 따른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애착, 인지적 자극의 차이를 비교한다.
- 아동행동문제와 양육특성(양육태도, 양육부담감, 애착, 인지적 자극)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용어 정의

● 빈곤아동

최저생계비와 부양인의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국가에서 생활보조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인 빈곤층 및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속하는 잠재적 빈곤층을 통칭하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의료비 지원 가정 등 국가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1개 시의 2개동에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빈곤계층으로 등록된 가정에 있는 만 6세 이하의 아동 대상자를 말한다.

● 아동행동문제

아동행동문제란 아동의 사회적 및 정서행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K-CBCL)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빈곤계층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1개 시의 2개동에 거주하는 빈곤계층 학령전기 아동의 주양육자로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103명이었다. 빈곤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차상위 계층으로서 공공기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연구 도구

● 아동 행동문제

Achenbach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등(1997)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사용하였다. 총 119개 문항으로 3점 척도로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2점)로 평정하며,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성문제의 9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을 합한 점수는 내재화 행동문제로, 비행과 공격성을 합한 점수는 외현화 행동문제로 해석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행동문제 전체 .940, 내재화 29문항 .815, 외현화 33문항 .864였다.

● 훈육방법

훈육방법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조용한 말로 타 이른다’, ‘언성을 높여 화낸다’, ‘때린다’, ‘때리지 않고 다른 벌을 준다’, ‘내버려둔다’의 각각의 항목에 대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때때로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중 빈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안함으로, 때때로 사용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함으로 분류하였다.

● 양육에 대한 자신감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현재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1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약간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못하다’,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봉주 등(2004)이 위스타트 사업의 기

초조사를 위해 문헌을 토대로 개발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친밀도, 민감성, 반응성, 분노조절, 칭찬, 훈육방법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양육태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문항의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14였다.

● 양육부담감

양육자의 양육부담감은 이봉주 등(2004)이 개발한 것으로 양육과 관련하여 물건장만, 아이 다루기,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와 지식, 시간과 노력, 잘 키울지에 대한 확신, 조력자 유무와 관련하여 느끼는 부담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6개 문항의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38이었다.

● 애착행동

애착행동은 기존 도구들을 토대로 이봉주 등(2004)이 축약하여 만든 것으로 '양육자의 말이나 웃음 등에 반응을 보인다', '신체접촉을 좋아한다', '서로 눈맞춤을 한다', '상호작용하는 동안 함께 웃는다'의 4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12였다.

● 인지적 자극

인지적 자극은 이봉주 등(2004)에서 사용된 것으로 상상놀이, 노래 불러주거나 같이 부르기, 책 읽어주기, 운동이나 신체적인 활동 같이하기의 4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782였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1개 시의 2개동에서 빈곤계층 아동의 통합서비스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의뢰받아 사업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작성하여 전화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조사원이 가정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가보고형 설문지 작성은 가

정에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나 기타 양육자가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필요 시 조사원이 문항을 설명하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아가 46.6%였으며 평균 연령은 4.79세였다. 주양육자는 엄마인 경우가 74.8%였으며, 평균 월수입은 90.96만원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03)

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Child's gender	Boy	48(46.6)
	Girl	55(53.4)
Child's age		4.79± 1.02
Primary caregiver	Mother	77(74.8)
	Father	14(13.6)
	Grand parent	8(7.8)
	Other	4(3.8)
Monthly family income (ten thousand)		90.96±50.71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행동문제

대상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내재화, 외현화 행동 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양육자의 특성에 따른 행동문제

양육자의 특성으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훈육방법에 대한

<Table 2>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and age (N=103)

Variables	n	Internalizing behavior	t or F	p	Externalizing behavior	t or F	p
Gender	Boy	48	4.73±5.76	-.227	7.71±7.06	-1.524	.131
	Girl	55	4.51±4.04				
Age	3	12	3.92±4.17	1.062	5.83±5.39	.731	.536
	4	30	4.57±3.92				
	5	29	3.66±4.14				
	6	32	5.78±6.35				

사용여부, 양육자신감의 정도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 양육자의 훈육방법에 따른 아동행동문제의 차이

양육자가 훈육방법으로 언성 높여 화냄, 때림, 벌줌, 내버려둠의 훈육방법을 각각 사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행동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언성 높여 화내는 경우

불안과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미성숙 행동과 내재화 문제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때리는 경우에는 불안 및 우울, 미성숙, 주의집중, 공격성의 하부 영역 문제들이 높았으며 결국 내재화 행동과 외현화 행동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 때리는 것 이외의 벌을 주거나 내버려 두는 경우는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child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caregiver's discipline method

Categories	Yelling & Angry		t	p	Spanking		t	p
	No (n=7)	Yes (n=86)			No (n=34)	Yes (n=53)		
Withdrawal	.71± .76	1.58±1.68	-1.352	.180	1.21±1.41	1.79±1.80	-1.608	.112
Somatic complaints	.43±1.13	.87±1.44	-.795	.429	.62±1.02	1.04±1.65	-1.329	.187
Anxiety/depression	.57± .53	2.31±2.28	-5.481	.000	1.44±1.50	2.74±2.57	-2.655	.009
Social problems	.86±1.21	2.00±1.71	-1.724	.088	1.29±1.55	2.23±1.74	-2.545	.013
Thought problems	.14± .38	.23± .61	-.384	.702	.15± .36	.28± .72	-1.170	.246
Attention problems	1.00±1.83	2.56±2.78	-1.453	.150	1.32±1.66	3.04±3.13	-3.320	.001
Delinquent behaviors	.57±1.13	1.15±1.48	-1.008	.316	.88±1.01	1.28±1.73	-1.225	.224
Aggressive behavior	3.71±5.62	5.99±4.86	-1.178	.242	4.03±3.59	7.06±5.50	-3.106	.003
Sex problem	.14± .38	.36± .68	-.828	.410	.29± .68	.40± .69	-.680	.499
Internalizing	1.71±1.80	4.77±4.71	-1.699	.093	3.26±3.09	5.57±5.36	-2.271	.026
Externalizing	4.29±6.73	7.13±5.09	-1.214	.228	4.91±4.24	8.32±6.30	-2.894	.005

Categories	Punishment		t	p	Indifference		t	p
	No (n=25)	Yes (n=62)			No (n=55)	Yes (n=16)		
Withdrawal	1.88±2.05	1.27±1.50	1.531	.129	1.64±1.64	1.50±2.28	.267	.790
Somatic complaints	1.08±1.80	.77±1.29	.890	.376	.96±1.45	1.10±1.93	-.082	.935
Anxiety/depression	2.32±2.38	2.01±2.26	.560	.577	2.49±2.41	1.63±2.16	1.293	.200
Social problems	1.92±1.96	1.65±1.54	.629	.534	1.82±1.59	1.94±1.88	-.254	.800
Thought problems	.32± .75	.19± .54	.882	.380	.22± .50	.25± .77	-.197	.845
Attention problems	2.48±3.49	2.02±2.29	.729	.468	2.29±2.67	2.31±3.28	-.027	.979
Delinquent behaviors	1.20±1.32	.83±1.04	1.350	.180	1.02±1.10	1.06±1.06	-.143	.887
Aggressive behavior	5.56±5.31	5.11±4.09	.422	.674	5.95±4.75	4.94±4.61	.751	.455
Sex problem	.36± .70	.26± .60	.684	.496	.29± .57	.38± .72	-.491	.625
Internalizing	5.28±5.54	4.06±4.39	1.082	.283	5.09±4.68	4.13±6.10	.677	.501
Externalizing	6.76±6.25	5.05±4.60	.658	.512	6.96±5.48	±	.623	.535

(No responses are excluded)

<Table 4> Comparison of child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caregiver's child rearing confidence

Categories	Are you doing well in child rearing?				F	p	Scheffe
	Strongly agree ^a (n=9)	Partially agree ^b (n=42)	Partially disagree ^c (n=43)	Strongly disagree ^d (n=9)			
Withdrawal	1.11± .78	1.02±1.20	1.70±1.91	3.22±2.68	4.720	.004	b<d
Somatic complaints	.44± .73	.52± .86	1.05±1.68	1.67±2.50	2.213	.091	
Anxiety/depression	2.33±1.87	1.50±1.55	2.33±2.38	5.56±4.22	7.969	<.001	a,b,c,<d
Social problems	2.00±2.06	1.52±1.40	2.12±1.94	2.22±1.99	.966	.412	
Thought problems	.56±1.01	.05± .22	.35± .72	.33± .71	2.793	.044	
Attention problems	2.11±2.15	1.50±1.82	3.14±3.43	4.00±3.61	3.469	.019	
Delinquent behaviors	.44± .73	1.05±1.03	1.47±2.10	.89±1.45	1.295	.280	
Aggressive behavior	2.78±1.86	4.64±3.55	6.67±5.94	7.33±5.50	2.718	.049	
Sex problem	.11± .33	.24± .48	.49± .83	.22± .67	1.518	.215	
Internalizing behavior	3.89±2.85	3.05±2.81	5.07±5.19	10.44±7.98	6.905	<.001	a,b,c,<d
Externalizing behavior	3.22±1.99	5.69±4.21	8.14±7.61	8.22±6.02	2.481	.065	

● 양육 자신감에 따른 아동행동문제의 차이

대상자들에게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가’를 질문하여 양육 자신감 정도에 따라 4단계로구분하여 이에 따른 아동의 행동 문제 정도를 비교한 결과 위축, 불안과 우울, 사고문제, 주의 집중, 공격성 및 내재화 문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검정 결과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지 못하다는 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위축, 불안과 우울, 그리고 내재화 행동문제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양육 자신감에 따른 양육태도, 부담감, 애착 및 인지자극의 차이

대상자들의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가’를 묻는 4단계의 양육 자신감 정도에 따라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아동에게 필요한 인지적 자극을 주는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지 못하다는 군에서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며 양육부담감이 높고 인지적 자극의 정도가 낮았다. 양육 자신감 정도에 따른 애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애착, 인지적 자극과 행동문제의 상관관계

아동의 행동문제와 양육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바람직한 양육태도, 애착, 인지적 자극은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와 유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양육부담감은 내재화 행동문제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6>.

논 의

학령전기 아동의 행동문제는 이후의 학교 및 사회적 적응

과 대인관계 형성 등에 영향을 주며 성인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도 관심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특히 이 시기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훈육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빈곤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환경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행동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학령전기의 경우 여아보다 남아에서 더 많은 문제행동이 나타남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으나(이순형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결과는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며, 저소득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국 아동의 연구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Hall, Rayens, & Peden, 2008), 국내의 연구에서도 학령전기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오희옥 등, 2007).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양육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현정, 2001).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의 다양한 양육관련 변인들이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나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 중 Galambos, Baker와 Almeida (2003)는 특히 유아의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에 관련된 훈육방식은 어머니의 성격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훈육방법에서 언성 높여 화내는 경우 우울 및 불안이 유의하게 높아 직접적인 처벌을 가하지 않더라도 양육자의 심리상태나 정서적인 확대가 아동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아동에 대한 친밀도, 민감성, 반응성, 분노조절, 칭찬, 훈육방법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와 유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이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Table 5> Comparison of child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caregiver's child rearing confidence (N=103)

Categories	Are you doing well in child rearing?				F	p	Scheffe
	Strongly agree ^a (n=9)	Partially agree ^b (n=42)	Partially disagree ^c (n=43)	Strongly disagree ^d (n=9)			
Rearing attitude	25.78±4.06	25.31±3.19	23.32±3.55	19.00±2.65	8.342	.000	a,b,c>d
Rearing burden	15.13±2.64	12.20±3.00	16.02±3.89	20.11±2.85	17.375	.000	a,b<c<d
Attachment	15.00±1.32	14.57±2.07	14.22±2.04	12.57±1.51	2.444	.069	
Cognitive stimulation	15.22±3.42	15.95±2.96	14.98±2.95	12.13±1.96	3.865	.012	b>d

<Table 6> Correla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and child rearing variables (N=103)

Behavior problem	r(p)			
	Rearing attitude	Rearing burden	Attachment	Cognitive stimulation
Internalizing behavior	-.347(.001)	.367(<.001)	-.238(.018)	-.312(.002)
Externalizing behavior	-.399(<.001)	.171(.086)	-.290(.004)	-.279(.005)

있다. McElroy와 Rodriguez(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좌절에 대한 내인성 부족과 같은 심리적 인자들이 아동학대 잠재성과 부적절한 훈육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며, 아동에 대한 공격성과 연관되어 있어 이러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육자가 스트레스나 분노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올바른 훈육방법을 익히게 하는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이 잘못했을 때 때리는 경우 우울 및 불안, 미성숙, 주의집중,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결국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체벌이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부모가 신체적 처벌을 할 경우 유아는 부모를 모델링함으로써 공격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오희옥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때리거나 벌을 주는 등의 체벌을 이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내버려두는 방임 여부에 따라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오희옥 등(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강압적인 체벌을 가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묵인하고 철회하며 훈육을 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 유아의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령전기 아동에게 주는 벌의 강도가 학령기 아동에게 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내버려둔다'의 경우 학령기 아동에게는 방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학령전기 아동에게는 혼내지 않고 수용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강압적 체벌과 방임이라는 선행연구는 일부만 지지되었다.

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에 따라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인지적 자극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양육자가 양육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잘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지지를 해주는 중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육자신감은 아동의 행동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격 특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않았지만 아이를 잘 키우고 있지 못하다고 양육자가 생각하는 경우 아동의 행동문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자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양육부담감이 위축이나 불안 및 우울을 비롯한 내재화 문제와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훈육방식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다양한 양육 관련 특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학령전

기 아동의 행동문제와 어머니의 양육부담감간에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다는 방경숙(2006)의 연구, 유아의 공격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상관관계가 있다는 윤진주, 강신영, 이복주(2005)의 국내 연구 및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Jones와 Prinz(2005)의 연구,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과 방식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아동의 불안과 우울, 내재화 행동문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Laskey와 Cartwright-Hatton(2009)의 국외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12세 이하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홍순혜와 이숙영(2009)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때 아동의 우울감, 공격성, 사회성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은 높았으나 공격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상자의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는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내재화 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애착과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김향숙과 이정숙(1996)의 연구에서도 불안전 애착관계에 있는 아동은 안전애착관계에 있는 아동보다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인지적 자극을 적절히 주는 긍정적인 양육환경 조성도 문제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 자극을 주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양육의 한 형태로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계층 아동과 일반계층 아동을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빈곤계층의 경우 일반계층보다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이 많으며 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적지지가 부족하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방경숙, 양수, 현혜진, 김지수, 2008; 홍순혜, 이숙영, 2009) 빈곤계층의 경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양육과 훈육방식을 취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들의 행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시켜 나가는 한편 부모교육을 통해 올바른 양육과 훈육을 할 수 있도록 동기화 시키고 지지해주는 간호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Holland, Reynolds와 Weller(2007)가 사회적 환경, 네트워크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였듯이 빈곤계층 아동과 가족이 지역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의 대물림과 빈곤으로 인한 아동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위스타트(이봉주 등, 2004)나 드림스타트(드림스타트,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09)는 빈곤계층 아동을 위한 조기중재 프로그램으로서 부모의 양육능력과 아동의 행동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결론

본 연구는 빈곤계층 학령전기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관련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일개 시의 빈곤 지역 두 곳을 중심으로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학령전기 아동의 양육자 10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양육자의 훈육방식, 특히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경우 아동의 불안 및 우울이 높았으며 체벌을 가하는 경우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가 모두 높았다. 특히 양육자가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위축, 불안과 우울, 그리고 내재화 행동문제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바람직한 양육태도, 애착, 인지적 자극은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와 유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양육부담감은 내재화 행동문제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아동의 행동문제가 양육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학령전기 아동을 둔 빈곤계층 부모와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고 애착을 증진시키며 올바른 훈육과 적절한 발달적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과 중재가 활성화되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김향숙, 이정숙 (1996). 모자의 애착유형에 따른 문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277-292.

김현정 (2001).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기 행동문제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81-95.

드림스타트 (2009). *사업소개 드림스타트란* <http://www.dreamstart.kr/>

문영숙, 박인숙, 박영옥 (2006). 학령기 아동의 아동행동문제 예측모형. *아동간호학회지*, 12(4), 514-522.

방경숙 (2006).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과 행동문제 및 어머니의 양육부담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9(1), 55-61.

방경숙 (2007). 미취학아동 어머니의 모자보건관련 특성, 양육부담감, 사회적지지에 대한 사회계층별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3(4), 390-398.

방경숙, 양수, 현혜진, 김지수 (2008). 경기도 위스타트 사업을 위한 미취학 빈곤 아동 건강 및 양육 실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2(1), 104-115.

보건복지가족부 (2009). *정책마당 아동복지사업 드림스타트* <http://www.mw.go.kr/>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아동 행동 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오희옥, 오선옥, 김영희 (2007).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대한*

가정학회지, 45(2), 1-22.

윤진주, 강신영, 이복주 (2005).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761-770.

이봉주, 양수, 김명순 (2004). *We Start 경기도 마을 복지, 교육 보건 욕구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경기도 정책 보고서.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81-192.

홍순혜, 이숙영 (2009).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빈곤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방임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8, 137-169.

Assis, S. G., Avanci, J. Q., & deOliveira, R. V. (2009). Socioeconomic inequalities and child mental health. *Rev Saude Publica*, 43(Suppl 1), 92-100.

Dodge, K. A., Greenberg, M. T., & Malone, P. S. (2008). Testing an idealized dynamic cascade model of the development of serious violence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9(6), 1907-1927.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Hall, L. A., Rayens, M. K., & Peden, A. R. (2008). Maternal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 behavior. *J Nurs Scholarsh*, 40(2), 124-130.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 Psychol Rev*, 25(3), 341-363.

Keane, S. P., & Calkins, S. D. (2004). Predicting kindergarten peer social status from toddler and preschool problem behavior. *J Abnorm Child Psychol*, 32(4), 409-423.

Laskey, B. J., & Cartwright-Hatton, S. (2009). Parental discipline behaviors and beliefs about their child: associations with child internalizing and mediation relationships. *Child Care Health Dev*, 35(5), 717-727.

Leckman-Westin, E., Cohen, P. R., & Stueve, A. (2009).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child interaction patterns: association with toddler problems and continuity of effects to late childhood. *J Child Psychol Psychiatry*, 50(9), 1176-1184.

- McElroy, E. M., & Rodriguez, C. M. (2008). Mothers of children with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cognitive risk factors for abuse potential and discipline style and practices. *Child Abuse & Neglect*, 32, 774-784.
- Richters, J. E., & Martinez, P. E. (1993).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Community Violence Project: I. Children as victims of and witnesses to violence. Special issue on children and violence.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56, 7-21.
- Scaramella, L. V., Neppl, T. K., Ontai, L. L., & Conger, R. D. (2008). Consequence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across three generation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externalizing problems. *J Fam Psychol*, 22(5), 725-733.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and Relating Factors in Poverty Group

Bang, Kyungsook¹⁾

1)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s' child rearing characteristics including discipline method, child rearing confidence, attitude, burden, attachment, and cognitive stimulation and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in poor, urban group. **Method:** A cross-section study design was used. Conveniently selected one hundreds and three preschool aged children and their caregivers who are under National Security Act were recruited. Data was collected using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 comprised of nine sub-dimensions and caregivers' self report questionnaires. **Results:** Caregivers' discipline method was associated with behavior problems of child. Th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scores including aggressive behavior of children who experienced spank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children who did not. In addition, Caregivers' child rearing confidence also showed associations with the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hild behavior problems showe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caregivers' child rearing burden, an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child rearing attitude, attachment, and cognitive stimulation. **Conclusion:** Caregivers' negative discipline methods and low child rearing confidence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children's behavior problems of poor, urban children. Nurses working in primary care and community-based settings are in key positions to address this problem and improve the parenting attitude of low-income caregivers and positively affect the behavior of their children.

Key words : Preschool child, Child behavior, Poverty, Child rear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Bang, Kyungsook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an 5, Woncheon-dong, Youngtong-gu, Suwon 443-721, Korea
 Tel: 82-31-219-7016 Fax: 82-31-219-7020 E-mail: ksbang@ajou.ac.kr